

남북해외 여성들의 단결과

6.15공동선언 실현에 여성들이 앞장서기 위한 공동결의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1년이 더해가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그야말로 민족자주선언, 민족대단결선언으로 통일을 위해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통일의 이정표이며 통일의 옥동자이다. 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은 여성들에게 자주와 통일의 세상을 안겨줄 통일의 선물이다.

분단 55년동안 받아왔던 여성들의 억압과 고통의 역사는 그야말로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겪지 못할 일들의 연속이었다.

일본이 쫓겨나자마자 미국놈들이 이땅을 꿰어차고 앉아 여성들을 유린했던 역사는 어떠한가?

전쟁시기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이는 천인공노할 양민학살 만행부터 시작한 여성유린 역사는 윤금이, 이기순, 신차금..이름을 다 열거하기도 힘들정도의 수많은 여성들을 강간하고 때리고 살해했던 놈들이 바로 미국놈들이다.

또한 자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배포시키면서 아직까지 고용불안정과 차별적 저임금을 낭게 하는데 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은 집안에 있어야 하며 가사노동의 전담자라는 명제를 만들어놓고 현재까지 여성들에게 가장 차별적인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을 만들고 있다.

이것뿐인가?

제국주의적인 성문화의 왜곡되고 변태적인 성문화를 유포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성상품화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지금에 있어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역사 왜곡을 당당하게 진행하며 아시아를 재침략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고 자위권이네, 신사참배네 하면서 군국주의를 부활시킬 음모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교과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나아가서는 미국과 발걸음을 같이 하여 민족통일을 가로막고있는 행위로 되고 있는 것이다. 50년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당당히 살아가시는 지금의 이 현실에도!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있지도 않은 일이라며 발뺌하는 모습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종이쪽에 적힌 몇자의 글을 지운다고 역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백번 이야기를 하여도 역사는 진정 그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처부술수 있는 힘은 오로지 민족의 단결이다.

분단의 역사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억압받았던 여성들의 단결의 힘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남북해외 여성들의 단결된 힘으로 통일을 위한 길에 힘차게 나설것임을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여성들이 가장 앞장서 나갈 것을 결의한다.
2. 우리는 하루에도 5건이상씩의 범죄로 여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통일을 가로막으며 이남에는 내정간섭, 이북에는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 규탄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3. 우리는 현재 역사교과서 왜곡을 진행하면서 다시금 아시아를 재침략 하려고 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자 하면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본 규탄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4. 우리는 6.15공동선언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해외의 여성단체들간의 교류가 절박하다고 보며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우리는 새 세기 첫 해에 맞는 광복절을 여성민중들과 성대하게 치를것이며 8.15를 기념하여 평양에서 南北해의 여성들이 만나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 일동

공동선언의 생활력과 여성의 생활력이 낮은 꼴이구나
여성의 힘으로 공동선언 이행하자!

6.15공동선언 이행 토론회

전여대협 발제문

6.15공동선언 이행에 여성이 앞장서서 여성해방된 통일조국 건설을 앞당기자

이남의 여성민중들은 수많은 여성문제를 겪으면서 살아오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여성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되었고, 그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분단 구조이다.

분단으로 인한 여성의 차별과 억압은 어떠한가?

그에 앞서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즉 미국에 의해 분단이 될 수 밖에 없었음을 분명히 해야 하며 미국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자마자 미국에 의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부분이 예속된 채 분단이라는 구조가 여성에게 수많은 억압을 가하고 있음은 자명한 현실이다.

1. 분단으로 인한 여성 억압의 측면

1)정치적 측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을 분단시키고 이남사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결합시켜 남녀를 분할통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은 사회적으로 소극성을 강요받으며 부차적 존재로 인식되고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2)군사적 측면

분단이후 이남의 군사는 미국에게 철저히 예속되어 있다.

분단이 된지 55년, 아직도 남북은 정전상태, 즉 전쟁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로서 여전히 전쟁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여성이 입는 피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역사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정전상태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군사중심의 사회가 유지 될 수 밖에 없다

군사중심사회에서 국방비는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여성복지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예산을 삭감하고 축소하게 된다.

특히나 미국의 식민지 분단구조하에서 주문하게 된 미군은 하루 평균 5~6건의 범죄를 일으키고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변태적인 성문화를 유포시키면서 여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3)경제적 측면

분단구조를 이용하는 미국의 식민지, 자본주의 조건 그리고 가부장제를 교묘히 결합시키는 조건에서 여성들은 2중 3중의 착취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여성인 문제, 고용과정에서의 성차별, 낮은 임금, 정리해고 0순위, 가사노동의 무뎌가는 바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저임금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차별 정책의 결과이다.

이렇게 여성민중의 생존권 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모성보호는 사치로 치부되고 있다.

4)문화적 측면

미군기지에서 유포되는 변태적인 성문화와 제국주의 문화 침탈은 그릇된 성문화와 성상품화를 가속화 시키고 개인주의를 확산시켜 민족의 단합을 저해 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 의해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이 바로 여성민중들이다.

2000년 6월15일 우리민족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을 만들어내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원칙과 실천적인 방도까지 제시한 조국 통일의 이정표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6.15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2. 여성에게 보여지는 6.15 공동선언의 의미와 역할

여성에게 있어 6.15공동선언이 가지는 의미와 여성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1항은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주한미군 범죄를 통해서 민족이 자주권을 잃으면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고,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기 위해서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전민족이 대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은 반미 투쟁과 반일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고 민족대단결에 선봉에 서야 한다. 전민족 대단결을 위해서는 남북해의 여성민중이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연합 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이남내 여성의 연대연합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선차적으로 이남내에서 여성민중들과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6.15공동선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연대연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2항은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통일의 상을 밝힌 항으로써 장차 우리가 살아갈 통일조국의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조국통일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고 하여 여성차별적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여성해방, 인간해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보면 통일이 되고나서 더욱더 험차게 매진해 나가야 할지 모른다. 따라서 여성민중들은 장차 통일조국의 상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데 여성의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4항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도에 대한 것으로써 직접 만남으로써 민족 대단결 의식이 높아 질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이롭게 할 수 있다.

남북의 여성들은 여성 정책과 여성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서 모두가 평등한 통일 조국을 준비하고 또 앞당기는 방향으로 교류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3. 6.15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기 위한 전여대협 투쟁방향

전여대협은 여대생들이 6.15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서기 위해 하반기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이북에 잘 보존되어있는 위안소를 답사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 범죄, 여성에 대한 성범죄 등의 성격으로 민족 자주를 담고 있고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민족 대단결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으며 여성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군사주의 부활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일본에게 과거 우리민족에게 자행했던 죄행을 사죄하게 하고 군국주의 부활음모 저지 투쟁으로 까지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8.15통일행사에 있을 여성통일한마당을 남북해의 여성들의 힘으로 성대하게 치루어 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남에서의 여성단체들과의 연대사업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분단은 여성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통일로 가는 지름길인 6.15공동선언 이행에 남북해의 여성들이 힘을 모아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